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9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최숙희, 송선희
호서대학교

The Effect of elderly Wisdom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Suk-Hee Choi, Sun-Hee Song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와 천안시의 노인 회관 및 노인복지관, 종교시설 이용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227명이었다. 연구 결과 노인의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혜가 노인 삶의 중요한 변인들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노인의 지혜의 수준과 개인특성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성별과 연령에서 자녀관계의 질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혜수준이 높고 여성인 경우, 지혜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지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know whether there are any quality differences among wisdom,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ild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27 old people who were over 65 years old among people using the hall for the elderly or elderly welfare center, worship facilities in Cheonan City or Kyeonggi Province. In addition, the effect that wisdom influences each valuable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of the satisfaction of living,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the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The result of research in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ex and age showed the interaction effect.

Key Words : Wisdom, Life Satisfaction,,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 서 론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년기에 대한 연구는 노년기를 발달적으로 퇴보하

Received 6 October 2014, Revised 11 Novem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un-Hee Song(Hoseo University)
Email: shso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거나 능력이 저하되어 보호되어야 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고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노년기가 되어서도 여전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노년기도 어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목표와 잠재성을 가진 생산적인 존재로서의 인식전환이 일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성숙과 발달의 긍정적 의미로서 지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1].

Rowe & Kahn은 Erikson의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노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 성숙의 의미로서의 지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2]. Erikson은 그의 전 생애적 발달이론에서 인간의 마지막 발달 단계로 '자아 통합' 대 '절망'의 시기인 노년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결과로 자아통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Erikson의 이론에서 지혜는 노년기의 새로운 발달 가능성 및 발달 목표를 의미하는데, 이는 인생 후반기의 성숙과 심리적 발달을 노화의 긍정적 측면으로 접근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정지되거나 퇴보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3].

Ardelt는 지혜(知慧)에 대하여 사물에 대한 이치나 선악을 구분하는 정신 작용으로, 자아통합과 성숙, 판단력과 대인관계 기술, 인생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자질을 포함한 인간발달의 핵심이라고 하였으며, 인생의 도전과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다차원적인 속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4재인용].또한 김민희(2008)는 지혜가 노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며,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상실과 같은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5].

이와 같이 노인의 지혜는 노인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성공적 노후의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이 노인의 지혜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노인에게 있어 지혜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지혜수준과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고찰

2.1 노인의 지혜

최근 지혜는 나이와 관련된 발달적 차원의 관심분야로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정지되거나 퇴보하는 부정적 변화들과 달리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오히려 높아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혜가 삶의 다양한 경험의 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했을 노인들이 더 지혜로울 것이라는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6]. Ardelt는 지혜의 개념을 인지, 반성, 정서의 통합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인지적 요인은 개인의 내적 문제나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의 진실과 삶에 대한 이해로, 반성적 요인은 자신의 삶과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다른 방향의 사고와 검토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요인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연민으로 설명하고 있다[7]. 또한, 이수림・조성호는 지혜에 대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인지적으로는 높은 안목과 통찰력, 탁월한 판단을 의미하며, 개인내적으로는 자아의 균형적 통합과 조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 노인의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연구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지혜와의 관련성을 본 성기월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지혜점수가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혜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혜와 성공적 노화와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6]. 또한 김민희・민경환의 '지혜의 연령차와 중노년기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을 본 연구에서는 청년집단보다 중년집단이, 중년집단보다 노년집단이 지혜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혜는 연령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지혜와 성공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혜는 인간 삶의 적응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2.2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꾸준히 연구되어온 변인 중의 하나이다. William James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가치, 즉,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자신의 성취수준”으로 처음으로 정의하였다[9]. 이자영・남숙경[9]은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믿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Rosenberg[10]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에 있어 살아가는 원동력이며, 주어진 삶에 적응하고 발전시키는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영례・권혜진[11]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진취적이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며,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느끼며, 열등감에 빠져 소극적인 삶을 산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노인이 자신의 노년기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개념은 Neugarten[12]등이 활동이론과 분리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면서부터 노년학 연구의 주요 연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삶의 질, 생활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는 다차원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영역이기 때문에 학자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박성복[13]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노인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노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질적 수준으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만족과 지혜와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Clayton[14]은 지혜와 인생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지혜를 가진 노인들은 자신을 더 잘 통제하고 상실에 대해 인정하며, 자신들의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도 유머로 대처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으며,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Ardelt[15]는 노년기 삶에서 물리적인 환경보다 지혜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국내 연구에서는 지혜의 인지적 역량이 높을수록 성인은 삶에 대해 더 만족하고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심리적 복지감

백경숙・권영신[16]은 심리적 복지감을 매우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활이나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의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혜[17]는 심리적 복지감을 주관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긍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Okun(1987)의 연구를 토대로 밝히고 있다.

2.5 자녀관계의 질

자녀관계의 질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적 수준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의 유대가 노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rikson은 성인이 타인과의 친밀감을 통해 사랑이라는 가치를 획득한다고 하였다[18]. 김다희・안정신은 가족은 노인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성취감과 자아통합감을 달성하여 지혜를 획득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 권중돈의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동거하지 않은 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1], 김문정의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자녀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손자녀 양육 조모의 양육스트레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와 충청남고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지역의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종교시설 이용

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총 270명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노인의 특성상 본 연구자가 설문항을 읽어주어 대상자가 답하는 것을 체크하였으며,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한 22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156	68.7
	Female	71	31.3
Age	Below-average	83	36.6
	Above-average	144	63.4
Edu-cational history	Ineducation	72	31.7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81	35.7
	Middle School graduation	31	13.7
	High School graduation	33	14.5
	University graduation	10	4.4
Health status	Very bad	12	5.3
	Bad	73	32.2
	Normal	62	27.3
	Good	67	29.5
	Very good	13	5.7
Level of living	Very bad	2	.9
	Bad	28	12.3
	Normal	134	59.0
	Good	55	24.2
	Very good	8	3.5
Total		227	100.0

3.2 측정 도구

3.2.1 지혜

노인의 지혜는 김민희[18]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인의 지혜척도를 사용하였다. 지혜척도는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이다. 지혜척도의 점수분포는 43~2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혜점수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5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혜의 수준과 개인별 특성, 본연구에서의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하여 지혜의 수준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혜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높아진다는 견해와 낮아진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의 지혜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165이상)과 낮은 집단(164이하)으로 구분하였다.

3.2.2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Global Self-Esteem Scale(GSES)을 강인[20]등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묻는 5문항과, 부정적 태도를 묻는 5문항으로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부정적 진술문에 대해서는 역코딩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804로 나타났다.

3.2.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on, Griffin(1985)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한국판으로 번안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임영진[21]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7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742로 나타났다.

3.2.4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은 Ryff(1989)가 개발한 Psychological Well-being을 강인[22] 등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율감, 목적감, 성숙, 통제감, 자아존중감, 타인과의 관계를 묻는 6개 하위 영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향이 다른 문항들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653로 나타났다.

3.2.5 자녀관계의 질

자녀관계의 질을 측정한 도구로는 신화용(2004)의 관계의 질을 김문정[19]의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의 질'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녀관계의 질을 묻는 측정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감, 가깝다고 느끼는 정도, 관심과 대화의 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관계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878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행하여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노인들의 개인 특성에 따른 지혜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대한 지혜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혜수준과 개인별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사용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ognitive competency	Moderation and balance	Positive life attitude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sdom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elf-acceptance	Sense of purpose	Personal growth	Sense of control	Self-worth	personal relations	Psychological Wellbeing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Cognitive competency	1														
Moderation and balance	.710***	1													
Positive life attitude	.678***	.627***	1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503***	.683***	.591***	1											
Wisdom	.915***	.876***	.843***	.728***	1										
Life Satisfaction	.375***	.352***	.426***	.219**	.418***	1									
Self-esteem	.618***	.624***	.577***	.477***	.684***	.432***	1								
Self-acceptance	.458***	.513***	.502***	.541***	.569***	.224**	.489***	1							
Sense of purpose	.479***	.522***	.483***	.359***	.549***	.516***	.713***	.400***	1						
Personal growth	.328***	.262***	.389***	.266***	.368**	.227**	.342***	.247***	.285***	1					
Sense of control	.066	-.026	.239***	-.032	.082	.051	.147*	-.012	.144*	.110	1				
Self-worth	.367***	.326***	.474***	.339***	.437***	.313***	.454***	.321***	.432***	.234***	.117	1			
personal relations	.174**	.237***	.210**	.238***	.238***	.073	.239***	.176**	.140*	.151*	-.018	.146*	1		
Psychological Wellbeing	.547***	.534***	.672***	.490***	.654***	.423***	.707***	.613***	.734***	.556***	.427***	.668***	.417***	1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252***	.421***	.326***	.432***	.385***	.450***	.383***	.330***	.387***	.146**	-.086	.267***	.190**	.359***	1

*p<.05, **p<.01, ***p<.001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지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간의 상관분석

지혜,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지혜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와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혜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18, p<.001)을 보였고 지혜 하위척도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혜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지혜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84, p<.001)을 보였고 지혜 하위척도 모두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혜와 심리적 복지감 간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654,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혜 전체 및 하위척도와 통제감을 제외한 심리적 복지감 하위척도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혜와 자녀관계간의 상관분석에서는 지혜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85, p<.001)을 보였고 지혜 하위척도 모두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2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지혜는 삶의 만족도에 약 17.5%(R^2=.175), 자아 존중감에 약 46.8.1%(R^2=.468), 심리적복지감에 약 42.7%(R^2=.427), 자녀관계의 질에 약 14.8%(R^2=.148)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지혜는 삶의 만족도(β=.418, p<.001), 자아존중감(β=.684, p<.001), 심리적복지감(β=.654,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복지감의 하위척도에서도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569, p<.001), 목적감(β=.549, p<.001), 성숙(β=.368, p<.001), 자아존중감(β=.437, p<.001), 타인과의 관계(β=.238, p<.001), 자녀관계의 질(β=.385, p<.0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의 하위척도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지혜의 인지적 역량은 삶의 만족도에 약 14.1%(R^2=.141), 자아존중감에 약 38.3%(R^2=.383), 심리적복지감에 약 29.9%(R^2=.299), 자녀관계에 약 6.4%(R^2=.064)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 영향을 살펴보면, 지혜의 인지적 역량은 삶의 만족도(β=.375, p<.001), 자아존중감(β=.618, p<.001), 심리적복지감(β=.547,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복지감의 하위척도별 영향력은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458, p<.001), 목적감(β=.479, p<.001), 성숙(β=.328, p<.001), 자아존중감(β=.367, p<.001), 타인관계의 관계(β=.174,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혜의 인지적 역량은 자녀관계의 질(β=.252, p<.0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 하위척도인 절제와 균형이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절재와 균형은 삶의 만족도에 약 12.4%(R^2=.124), 자아존중감에 약38.9%(R^2=.389), 심리적복지감에 약28.5%(R^2=.285), 자녀관계의 질에 약 17.7%(R^2=.177)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절제와 균형은 삶의 만족도(β=.372, p<.001), 자아존중감(β=.624, p<.001), 심리적복지감(β=.534,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복지감의 하위척도별 영향력은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513, <.001) 목적감(β=.522, p<.001), 성숙(β=.262, p<.001), p<.001), 자아존중감(β=.326, p<.001), 타인관계의 관계(β=.237,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제와 균형은 자녀관계질(β=.421, p<.0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의 하위척도 긍정적 인생태도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인생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약 18.1%(R^2=.181), 자아존중감에 약 33.3%(R^2=.333), 심리적복지감에 약 45.2%(R^2=.452), 자녀관계의 질에 약 10.7%(R^2=.107)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긍정적 인생태도는 삶의 만족도(β=.426, p<.001), 자아존중감(β=.577, p<.001), 심리적복지감(β=.672,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복지감

〈Table 3〉 Regression Analysis :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R^2	B	SE	β	t
Wisdom	Life Satisfaction		.175	.102	.015	.418	6.898***
	Self-esteem		.468	.139	.010	.684	14.081***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324	.048	.005	.569	10.377***
		Sense of purpose	.302	.057	.006	.549	9.856***
		Personal growth	.135	.028	.005	.368	5.938***
		Sense of control	.007	.008	.007	.082	1.241
		Self-worth	.191	.040	.005	.437	7.293***
		personal relations	.057	.018	.005	.238	3.678***
		Total	.427	.199	.015	.654	12.959***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48	.037	.006	.385	6.259***
Wisdom.: Cognitive competency	Life Satisfaction		.141	.199	.033	.375	6.067***
	Self-esteem		.383	.273	.023	.618	11.807***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210	.085	.011	.458	7.731***
		Sense of purpose	.229	.108	.013	.479	8.179***
		Personal growth	.108	.054	.010	.328	5.208***
		Sense of control	.004	.014	.014	.066	.989
		Self-worth	.135	.073	.012	.367	5.915***
		personal relations	.030	.028	.011	.174	2.653**
		Total	.299	.361	.037	.547	9.792***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064	.053	.014	.252	3.912***
Wisdom.: Moderation and balance	Life Satisfaction		.124	.307	.054	.352	5.647***
	Self-esteem		.389	.451	.038	.624	11.963***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263	.155	.017	.513	8.968***
		Sense of purpose	.272	.192	.021	.522	9.171***
		Personal growth	.069	.070	.017	.262	4.079***
		Sense of control	.001	-.009	.023	-.026	-.385
		Self-worth	.107	.106	.020	.326	5.179***
		personal relations	.056	.063	.017	.237	3.667**
		Total	.285	.578	.061	.534	9.480***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77	.145	.021	.421	6.952***
Wisdom.: Positive life attitude	Life Satisfaction		.181	.389	.055	.426	7.059***
	Self-esteem		.333	.437	.041	.577	10.592***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252	.159	.018	.502	8.706***
		Sense of purpose	.233	.186	.023	.483	8.277***
		Personal growth	.152	.109	.017	.389	6.342***
		Sense of control	.057	.087	.024	.239	3.687***
		Self-worth	.224	.161	.020	.474	8.065***
		personal relations	.044	.058	.018	.210	3.226**
		Total	.452	.761	.056	.672	13.623***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07	.118	.023	.326	5.181***
Wisdom.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048	.366	.109	.219	3.359**
	Self-esteem		.227	.663	.081	.477	8.130***
		Self-acceptance	.293	.315	.033	.541	9.656***
		Sense of purpose	.129	.254	.044	.359	5.775***
		Personal growth	.071	.137	.033	.266	4.134***
		Sense of control	.001	-.022	.045	-.032	-.481
		Self-worth	.115	.211	.039	.339	5.408***
		personal relations	.057	.121	.033	.238	3.679***
		Total	.240	1.017	.121	.490	8.423***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187	.286	.040	.432	7.186***

*p<.05, **p<.01, ***p<.001

의 하위척도 자율감(β=.502, p<.001)목적감(β=.483, p<.001), 성숙(β=.389, p<.001), 통제감(β=.239, p<.001), 자아존중감(β=.474, p<.001), 타인관계의 관계(β=.210, p<.01)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생태도는 자녀관계의 질(β=.326, p<.001)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 하위척도 공감적 대인관계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한 결과, 공감적 대인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약 4.84%(R^2=.048), 자아존중감에 약 22.7%(R^2=.227), 심리적복지감에 약 24.0%(R^2=.240), 자녀관계의 질에 약 18.7%(R^2=.187)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대인관계는 삶의 만족도(β=.219, p<.01), 자아존중감(β=.477, p<.001), 심리적복지감(β=.49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에는 통제감을 제외한 자율감(β=.541, p<.001), 목적감(β=.359, p<.001), 성숙(β=.266, p<.001), 자아존중감(β=.339, p<.001), 타인관계의 관계(β=.238,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대인관계는 자녀관계의 질(β=.432, p<.001)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지혜수준과 개인 특성에 따른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지혜수준이 높은 집단(165이상)과 낮은 집단(164이하)과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성별과 연령에서 자녀관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른 변인에서는 지혜수준의 주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혜수준과 성별에 따른 자녀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성별(F=30.226, p<.001)과 지혜수준(F=20.903, p<.0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F=7.633,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수준과 연령에 따른 자녀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혜수준(F=9.641, p<.01)의 주 효과와 지혜수준과 연령(F=6.160, p<.05)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teraction Analysis : Wisdom level and S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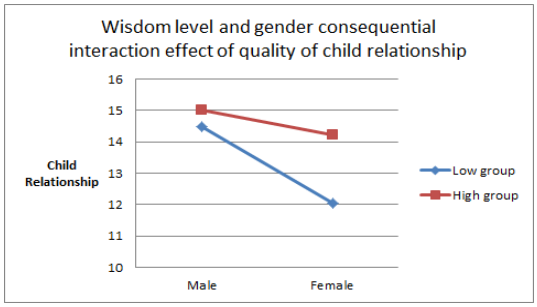
Classification		N	M	SD
Male	Wisdom low group	73	14.48	1.86
	Wisdom high group	83	15.01	2.09
Female	Wisdom low group	42	12.05	2.29
	Wisdom high group	29	14.21	1.88

Source	SS	df	MS	F	p
Sex	124.681	1	124.681	30.226	.000
Wisdom	86.224	1	86.224	20.903	.000
Sex * Wisdom	31.486	1	31.486	7.633	.006
Error	919.871	223	4.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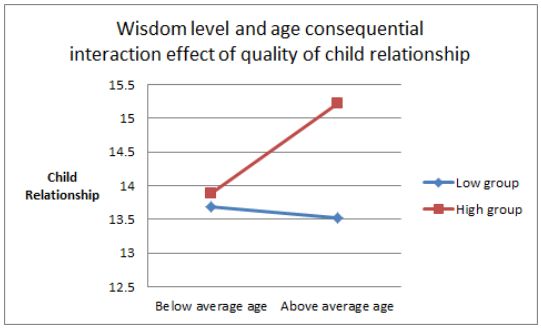
〈Table 5〉 Interaction Analysis : Wisdom level and Age

Classification		N	M	SD
Below average age	Wisdom low group	49	13.69	2.11
	Wisdom high group	34	13.88	2.53
Above average age	Wisdom low group	66	13.52	2.50
	Wisdom high group	78	15.21	1.68

Source	SS	df	MS	F	p
Age	16.825	1	16.825	3.576	.060
Wisdom	45.359	1	45.359	9.641	.002
Age * Wisdom	28.981	1	28.981	6.160	.014
Error	1049.140	223	4.705		



[Fig. 1] Interaction Analysis on Child Relationship: Wisdom level and Sex



[Fig. 2] Interaction Analysis on Child Relationship : Wisdom level and Age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지혜가 인간 삶의 중요한 기제이며, 성공적 노후의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지혜는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박소연・정명숙[26]의 연구 노인의 지혜가 지혜의 하위요인 모두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던 연구와, 김다희・안정신[1]의 연구에서 노인의 지혜와 생성감, 자아통합, 배우자관계와 자녀관계가 정적 상관을 보였던 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노인의 지혜가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지혜수준과 개인별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복지감, 자녀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지혜수준이 높고 여성인 경우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더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고, 지혜수준이 높고 연령이 평균이상(78세이상)인 노인의 경우 자녀관계의 질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성기월[6]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지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이수림, 조성호[8], 김민희[18]의 연구에서 지혜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되며, 관계만족과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지혜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지혜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노인에 대한 연구들이 노인을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존재로 보고 접근하여, 노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에 집중하여 연구 되어졌다면, 본 연구는 노인의 지혜를 발달적 측면의 통합적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이에 지혜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복지감,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혜는 노인의 삶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지혜가 단기간에 획득되는 인지적 요소가 아니라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기제임을 고려하여, 전 생애과정에서 지혜를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지혜는 기성세대가 가진 성장 동력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노년기 지혜의 획득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 노인들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구되어지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노인들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Da-Hee Kim, Jeong Shin An. The Relationship among Wisdom, Family Relationship, Generativity, and Ego-Integrity of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3, No. 2, pp. 381-395. 2013.

[2] Rowe, J. W. and Kahn, R. L. “Successful aging(Conference Paper)”, Gerontologist., Vol 37, Issue 4, pp. 433-440, 1997.

[3] Erikson, E. H,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1963.

[4] Ardelt, M,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Vol. 22, No. 4, pp. 360-394, 2000.

[5] Min-Hee Kim, Kyung-Hwan Min. Age Differences of Wisdom and Its Correlation With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aged and E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3, pp.947-971, 2010.

[6] Ki-Wol Sung. Relation of Successful Aging and Wisdom in Korean Older Adults. Korean Gerontol Nurs, Vol. 13, No. 1, pp. 48-57, 2011.

[7] Ardelt, M, "Wisdom as expert Knowledge system; A critical review of a contemporary operationalization of an Ancient concept," Human development, Vol 47, pp. 257-285, 2004.

[8] Su-Lim Lee, Seong-Ho Cho,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Korean Wisdom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lssues, Vol 18, No1, pp.1-26, 2012..

[9] Ja-Young Lee, Suk-Kyung Nam, Mi-Kyoung Lee, Ji-Hee Lee. Rosenberg's Self-Esteem Scale: Analysis of Item-Level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1, No. 1호, pp. 173-189, 2009.

[10] Rosenberg, M, and Simon, R.G.,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dan school child Washington D.C", Rosmonnography Series, pp.1-10, 1971.

[11] Young-Rye Park, Hye-Jin Kwoon, Kyung-Hee Kim, Mi-Hye Choi, Seung-Eui Han.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Self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the Aged, Vol. 29, pp. 237-258. 2005.

[12] Jung-Don Kwon, Ju-Yeon Ch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r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61-76, 2000.

[13] Sung-Bok Park. Influencing of Subjecti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4, No. 4, ,pp. 983-1011, 2012.

[14] Clayton, V "Wisdom and intelligence: The nature and function of knowledge in the later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Development, Vol 15, No 4, pp. 315-323, 1982.

[15] Ardelt M,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Vol 52, No 1, pp.15-27, 1997

[16] Kyung-Sook Baek, Yong-Shin Kwon. Stress Coping by the Relationship ammong Perceived Stress, the Ways of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8,pp. 379-402, 2005.

[17] Young-Hye Kim. Gender-Role Attitud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Married Elderly.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4.

[18] Min-Hee Kim. Exploring the Concept of Wisdom and Its Role on the Life among Middle-aged and Elder Adults in Korea.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19] Moon-Jeong Ki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Life Satisfaction in grandchildren.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9.

[2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The self-Esteem Scale. Measure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pp. 320-325, 1965.

[21] Young-Jin Lim.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mong Korean Police Officers, University Students,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 31, No. 3, pp. 877-896, 2012.

[22] Keyes, C. L. M., & Ryff, C. D. Generativity in adult lives: Seocial structural contours and quality of life consequences. In D. P. McAdams & E. D. St. Aubin(Eds.),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227-263, 1998.

[23] Myung-Sook Chung. Age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lif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4, pp. 87-108. 2005..

[24] Ki-Wol Sung, Shin-Young Lee, Jong-Han Park, Scale Development of Wisdom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1, pp.65-80, 2010.

[25] Mee-Ryoung Kim.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1, pp. 33-48. 2008.

[26] So-yeon Park, Young-sook Chong. Exploring the Wisdom of Old People an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4, No. 2, pp. 43-63, 2011.

최 숙 희(Choi, Suk Hee)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노인복지 석사)
- 2014년 2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심리, 노인상담, 노인교육
- E-Mail : sukhee410@naver.com

송 선 희(Song, Sun Hee)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문학 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노인심리, 노인교육
- E-Mail : shsong@hoseo.edu